No. 1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안에만 계신것이 아니라 이세상 모든곳에 계시고 기독교육신앙이 아니라 인류의 5千 술사를 초월하시며 그리스도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공산의 B든 신앙을 함께 사랑하여 주심을 믿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글라이크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눌린자에게 自由를" 이라는 주제 아래 전世界人权선언기념일인 오는 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신앙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이주하일에 대한 깊은 하는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신앙의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의 조화와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 이웃과 진정 사랑함을 믿으며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고백 합니다.

Date

우리는 이주간을 특별해야 할 주일로 계획하고 있나니
곧 이스라엘의 선택의 신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께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이주간 동안에 간절히 바라는 모든것을 이주간으로 끝내지
않고 있으나 우리생활에서 고난당하는 형제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위해서 억눌리고, 부당하게 수모를 당하고
기본권리를 빼앗긴 모든이들의 위로와 힘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회복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구를 통해본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것 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일에 서서 그들의 온갖
차별대한 아픔을 끼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것이 아니라
들고 웃는자와, 함께 울고 웃는데 나서, 내교회 안에 죽어서

고통하는 이웃을 위로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하고
계심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직분을 위해 힘써

자유하며 우리의 목소를 열심하라고 우리의 귀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인권주간 행사를 인간존중의 정당한
권리가 크게 주장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주변인 서울시내에는
곳곳이 대로와 골목마다 깡패의 난장판과 살벌함으로 권력을 이
용하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대학가에 노동현장에서나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빛을 주장을 하기에 그들의 기본권리 주장을 했다
하나한 광폭을 보고도 저러기까지 가능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주에게 구속노동자들의 등으로 생명을
그 밖에 누구입니까? 그들중의 상당수는 깡패들을 길러 내고, 특정한 누구의
주구처럼 노동현장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것이
오늘우리가 살고 있는 인권현장입니다.

Date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학생이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하나님 이름으로 같은 마음에서 자유를 그리워 하는 1988년의 양심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 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옳을 외쳤다니, 강대국의 횡포에 항거하다니, 이나라의 올바른 2천만족을 주장했다니, 통한을 뼈의 비수를 안겨주었다니, 심지어 같이 그리던 고국에서의 유학을 끝끝내 학도들과 같이 이들은 단지 그기에 양심을 속일수가 없었던것 뿐이 罪가 되어서 2년에서 무기의 이르기 까지 감옥에서 고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루속히 自由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여금 가족의 품에 돌아와 평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Date

하나님 앞에 올린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체 기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나라의 경제성장의 채찍선에서 울부짖며 부르짖는 근로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어 주시옵소서. 정의의 생계유지를 위해
그들의 권리주장을 하다 부당한 짓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11월 30일에 自己의 權利보호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한몸 희생시키면서 더이상 동료가 희생되지 않기
하기 위해 몸을 불살라 한 청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11월 2일 "민주노총" 노동현장의 부당한 부당한
해고를 항의하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재취업의 보장을 촉구하는 "요구의 취하고 말라"의 현수막을
올리고 단식농성중 폐암으로 강경한 태도에 항의하여
투쟁으로 뒤덮여 쓰러 생명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Date

이 사건은 자본으로부터 4대로부터 IP가이로 이유로 3일에 걸친 파업 노동자의 단결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을 일삼으로부터 4대로부터 80년 5월의 광주항쟁의 초점이 항의하여 분노하는 군중들의 이 이의 해방구에의 희생으로서 이들은 이 땅의 46만 자동차운수노동자와 800만 전노동자의 결합한 단결을 위해 자유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않게 하시고 그들의 뜻이 자유롭게 실현되게 하시며. 그들의 유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

고통받으시고 남기고 가신 여러 유가족들과 인제는 다시 만날 수 없게된 아들의 소식을 모르는 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노모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능력이 있기를 위해 유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옵소서.

Date

하나님! 우리는 대한고등학교의 가족을 위하여 최상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총장님을 7000여명의 수많은 학생들을 통하여 강제하심, 통해, 구원하심 하기 까지의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도록이 소망하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고등학교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교육을 대로 행하고 있음에 도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학생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500명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대학생이 취업대상의 불상사를 비롯해서

Date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열망을 짓밟는 에어지 크양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의 강경한 대응조치가 날로
우리 일로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국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인권보호의 열망 전체를 일상적인
"폭력" "불법행위"로 치부하여 학원소탕, 가두검문, 연행 수도
권 등으로 탄압하고 있는 학생의 정의로운 신념을 상해를 가해서
애국심의 정의로운 심판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강대국 틈에서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통치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생, 청년 학생 운동은
학원사태의 피해 당사자로 정부에 대한 학생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Date / /

9월 4일 체감리 광장에서, 11월 3일 다래골 광장에서 촛불시민의 퍼포먼스 항의 받대로 촛불 집회 행진곡의 의미와 의의를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광화문 광장의 여러 집회는 조금 위해로운 분들을 초청하여 촛불집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래의 촛불은 우리 모두 국민의 것입니다. 국내외의 촛불이 위대롭고 촛불과 촛불이 하나로 뭉쳐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기의 일부의 행동을 통해 벌금 또는 구속 이내를 받는 이들이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 위해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촛불이 고스란 그 기억과 이들과의 촛불과의 공감대에 시작과 끝을 되새기는 일을 하나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국의 책임과 처우에 대해 시작과 끝을 되새기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집회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촛불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도둑때문에, 학교에서, 그리 오는 일곱번째 할망에서 들려
오는 비명소리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그리 그의 모두의
모습을 떠올릴때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강도살인 사망의 주요의 동기이자 또 상대방도 또는
강도살인사망의 비명의 소리의 응답하는 것 그리에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기억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는 세명 또는 그리고 응답한 때에 이
그들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에 우리에 주요한 주요의 영향
주기 위해 또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의 관계가 깨어져 놓으로 바라보고 우주의 움직임의
관계는 동일한 방향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적인 방향보다는 이미
내적인 방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약 100년대를 살아온 현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바
약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까지 낮아져 하나님의 비로서
계획 하셨습니다.

그래 위해서 우리는 보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 위를 주님의 공로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